즉시 배포용: 8/3/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수제 양조 업자들에게 절약 제공

*서밋 후 시행된 개혁으로 **$400,000** 이상의 수수료 절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포도주, 맥주, 증류주 및 과실주 서밋 후 시행된 정책이 뉴욕주 양조업자들에게 지난 3년에 걸쳐 $424,000 이상의 수수료를 절약시켜 주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절약액은 이러한 소규모 제조업에 재투자되었으며 새 기업가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해도 농장 양조장 수가 62에서 78로 2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에 뉴욕주에는 그러한 양조장이 10개 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주의 음료 산업은 전세계 최상의 포도주, 맥주, 과실주 및 증류주들을 생산하는데, 이 지난 몇 년의 농장 양조장 수의 놀라운 증가는 비용을 낮추고, 레드테이프를 끊어서 이러한 생산자들이 창업하고 성장하기 더 쉽도록 만들려는 우리 노력의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소규모 농장 기반 음료 생산자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제품이 전세계에 출하됨에 따라 뉴욕주가 비즈니스를 위해 진실로 열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음료 산업을 지원하는 뉴욕주 리더십의 결과로 소규모 수제 음료 생산자들의 성장이 세수, 일자리 기회 증가, 농장 제품 수요 증대 및 주를 위한 관광 영향 진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수제 양조장의 성장 및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된 규제 및 입법 개혁:

- 브랜드 라벨 등록 수수료 폐지: 소규모 배치의 주류에 대해 브랜드 라벨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주지사의 법안이 2013년 12월 1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 주류청은 1,699건의 무수수료 브랜드 라벨을 승인하여 수제 양조장을 위해 $424,750를 절약시켜 주었습니다.
- 농장 양조장을 위한 중복 면허 폐지: 2012 서밋 전에는 농장 양조장들이 주류 면허에 추가하여 농업시장부의 허가를 $400 비용으로 팔요로 하였습니다. 2012 서밋에서 주지사는 이 요건을 폐지하여 농장 양조장들에게 $30,000 이상을 절약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설립된 새 농장 양조장들입니다:

명칭	시	카운티
Bardwells Mill Distillery	Remsen	Oneida
Niagara Distilling Company	Buffalo	Erie
Industry City Distillery	Brooklyn	Kings
Sagaponack Farm Distillery	Sagaponack	Suffolk
Little Chicago Distilleries	Olean	Cattaraugus
Honeoye Falls Distillery	Honeoye Falls	Monroe
Good Sherpherd Distillery	Mamaroneck	Westchester
High Peaks Distilling	Lake George	Warren
Tommyrotter Distillery	Buffalo	Erie
Kerrs Creek Distillery	Walton	Delaware
Gardiner Liquid Mercantile	New Patlz	Ulster
Cooperstown Distilling Company	Oneonta	Otsego
Chary Group	Buchanan	Westchester
Nahmias Et Fils	Yonkers	Westchester
Four Fights Distilling	Corning	Steuben
French Distillers & Alchemists	Lisle	Broome

SLA가 시행하던 같은 장소 복수 면허 발급의 오랜 금지를 Cuomo 지사가 종식시킨 결과로 23개 양조장이 자신의 제조 설비에서 복수의 주류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정책 변경 전에는 뉴욕주 생산 곡물로 위스키를 생산하고 또한 수입 당밀로 럼주를 제조하기 원하는 농장 양조장은 위스키를 위한 한 양조기와 럼주를 위해 완전히 별도의 양조기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이래 소규모 양조장, 소규모 정류장 및 과실 브랜디 생산자의 수가 2011년의 14에서 오늘날의 46으로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소규모 수제 음료 생산자들의 성장 잠재력을 처음부터 인식하였습니다”라고 SLA 청장 Vincent Bradley가 말했습니다. “수수료와 서류를 삭감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주류 법률, 정책 및 규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해 이 행정부는 우리 제조업자들을 위해 창업비 및 운영비를 크게 줄였으며 우리 커뮤니티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농장 제품을 위한 새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주 농업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류 산업을 확대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 노력 덕분에 우리는 주류 산업의 모든 측면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주 양조장들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새 높이에 도달하였으며 불필요한 수수료의 폐지 및 기타 비용 절약 조치는 계속해서 우리 음료 생산자들을 뒷받침하고 우리 농경제를 부흥시킵니다.”

뉴욕주Distillers Guild 회장 Brian McKenzi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 주 정부 기관들과 우리의 관계에 총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생성하며 농업을 뒷받침하고 새 관광 기회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위한 우리의 공헌을 주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4년에 걸쳐 발생한 규제 및 입법 변경은 우리 산업이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는 더욱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2년 10월에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주 최초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서밋을 개최하여 수 십명의 맥주, 포도주, 과실주, 증류주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민, 업계 간부 및 관광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 목표는 뉴욕주가 지속적으로 레드테이프를 끊고, 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의 수요를 증대하며, 업계 관련 관광 및 경제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지속적 성장 및 지원이 음료 산업에 엄청난 양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을 추적하려면 http://www.esd.ny.gov/NYSBeverageBiz.html을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